

작품설명서

작품명	ANSAN RE:GROUND
작품의도	도시는 끊임없이 확장되지만, 그 바닥은 여전히 차량과 인프라의 논리에 의해 조직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바닥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단절을 해결하는 방식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도시의 기반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ANSAN RE:GROUND는 중앙대로 지하화를 계기로 인프라 중심의 지면을 시민 중심의 활동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도이다. 단순한 녹지 조성이 아닌, 보행과 체류, 관람과 참여가 중첩되는 입체적 그라운드를 통해 도시의 일상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작품설명	ANSAN RE:GROUND는 중앙대로 지하화를 단순한 교통 체계의 변화가 아닌, 도시 기반을 재구성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한 계획이다. 기존 지면은 차량 흐름에 의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경계로 작용해왔다. 본 제안은 이 단절된 지면을 시민 중심의 공공 그라운드로 전환하여, 도시의 바닥을 다시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서 방향의 녹지 축과 남-북 방향의 도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하나의 평면적 광장으로 처리하는 대신, 레벨이 중첩되는 입체적 보행 구조로 재구성하였다. 동-서로 이어지는 녹지는 하부 통과와 브릿지 연결을 통해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남-북 흐름은 두 개의 입체 구조물을 통해 지상과 지하를 자연스럽게 관통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단절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성과 속도가 공존하는 다층적 도시 구조를 형성하였다. 교차의 중심에는 원형 선큰 공간인 Central Stage를 배치하였다. 이 공간은 지상과 지하의 시각적·공간적 연결을 유도하는 핵심 노드로서, 공연, 집회, 전시 등 공공 활동이 이루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선큰 구조는 상부 공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심으로 시선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수렴시키며, 통과와 공간을 체류와 참여의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양측에 배치된 곡면형 구조물 Urban Gate는 단절되었던 두 광장을 지하 보행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관문 장치이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도시의 방향성과 흐름을 드러내는 공간적 표식으로 작동한다. 상부는 스탠드형 녹지 플랫폼으로 계획하여 휴식과 조망이 가능한 도시 테라스를 형성하고, 연결 기능과 체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도록 하였다. 공원 전반에는 물결 형태의 지형 패턴을 적용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이한 도시 조직이 충돌하고 융화되는 과정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였다. 각 물결 단위는 독립된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예술, 놀이, 버스킹, 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는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간을 휴먼스케일의 활동 단위로 분절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과 속도에 따라 공간을 선택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SAN RE:GROUND는 인프라 상부를 단순히 녹지로 복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적 이동과 공공 활동이 중첩되는 새로운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는 제안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절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가 스스로를 다시 경험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시한다.